

언젠가 찾아올 그 날의 행복을 위해

글 · 박만순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는 것은 아쉬움 가득한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음이 새삼 느껴진다. 결핵이라는 고통의 짙은 짙어진 세월, 그 세월의 무게가 더욱 크게만 느껴지는 지금, 극히 제한된 삶의 굴레를 만들어 버린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난 과거의 아쉬움을 가슴 한가득 안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리고 또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부끄러운 내 삶의 고백을 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결핵은 병도 아니라고 쉽게들 말한다. 약이 좋아서 잘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나올 수 있는, 마치 감기 정도의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감기와 같다는 결핵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고 말았던 것...

나는 열일곱이라는 아주 꽃다운 나이에 결핵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꾸준히 복용을 했고 정말 말처럼 쉽게도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둘째 아이의 임신중에 다시 찾아온 결핵

그러나 항상 도시의 생활을 그리워하던 나는 그 도시의 불빛 속으로 날아갔고 그렇게도 그리던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장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찾자 친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따라하려는 욕심도 보였다. 술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정말 재미가 넘치는 생활을 만끽하며 살았다. 그리고 남

자도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았고 그 행복 속에서 난 결핵이라는 불행한 그림자가 나를 덮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채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출산 두 달을 앞두고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나는 결핵이 재발되었다는 충격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담당의사는 약을 복용해도 아이에게 이상이 없다며 처방을 해주었고 난 그 약이 어떠한 약인지도 모른 채 약을 복용하는 불안함 가운데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에 기쁨을 느끼며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 안 있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의 어려움은 주부들이란 다 알 것이다. 집안의 정리에서부터 그 주변의 새로운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 등등.

이러한 바쁨 속에서 난 자연스럽게 결핵약의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상태는 나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

그러나 함께 아픔을 나누고 동질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에게

따스함으로 대해주는 이곳 식구들과의 생활은

내게 점차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망가져 가고 있었다. 몸은 늘 피곤에 젖어 땀으로 흥건해지고 집안 일에 아이들 돌보는 일조차도 점점 힘들어져가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보건소를 찾게 되었다.

사진을 촬영한 결과 이미 폐는 거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차 약을 복용하면서 심한 구토와 함께 밥조차 먹을 수 없게 되어 불안감에 시달리던 나는 스스로 약국을 찾아다니며 의사의 처방이 아닌 내 임의대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난 내성이 무엇인지, 약이 몇 가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저 약국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면 지어주는 약을 가지고 돌아와 그것만을 복용하는 미련함만을 반복했던 것이다. 몸은 점차 힘들어져 열은 매일처럼 오르내리고 몸무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나갔다.

가족들에게는 과거의 병력을 숨겼기에 말을 하지 못했고 혼자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버티다 결국에는 완전히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가족의 그 원망과 야단을 모두 가슴에 담으며 1년을 버티던 나는 껌데기만 남아 있는 앙상한 몸을 가지고 공주에 있는 결핵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핵약에 내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결핵약이 몇 가지도 채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간간히 죽어나가는 환우들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결핵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움 때문에 더욱 소중해진 것들

공주병원에서 제대로 처방을 받고 검사를 병행하며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폐의 기능이 치료의 상태를 넘어선 지라 쉽게 낫지 않았다. 거기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반갑지 않은 병명이 하나

더 늘면서 쉽게 치료하지 못한 아쉬움은 두고두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만을 내게 남겨주었다.

더 이상 가족들과의 생활은 불가능해진 지금, 그들의 부담도 내겐 더 큰 아픔이 되기에 스스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 지친 몸 하나 뉘일 곳을 찾아 헤매며 결핵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보낸 세월이 벌써 3년. 이젠 더이상의 삶의 아픔을 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평화의 동산이라 부르는 보양원이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 그러나 함께 아픔을 나누고 동질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에게 따스함으로 대해주는 이곳 식구들과의 생활은 내게 점차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쩌면 결핵으로 방황하던 세월 중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몽클하게 남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고 온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다. 한 번씩 그리움이 가슴을 휘저으면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슬픔에 가슴 격한 눈물을 토해내야 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이 몸으로 이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그 냉혹함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며 밤을 지새우는 이 아픔들.

지금도 난 아침이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침과 객담으로 인해 하루를 고통스럽게 시작한다. 또 조그마한 동산의 예배당을 오르기 위해서 몇 번이고 쉬고 쉬어야 하는 숨가쁨에 온몸을 떨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기만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이 내 가슴을 채우고 그로 인해 삶에 힘을 얻곤 한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두 손을 모으고,
그나마 이 작은 삶에 평안이 있음에
겸손히 두 손을 모아본다.
바록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내게 찾아올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을 위해,
삶의 아름다움에 활짝 웃음 짓는
그 날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모아본다.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 전남순천보양원 식구들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결핵을 앓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